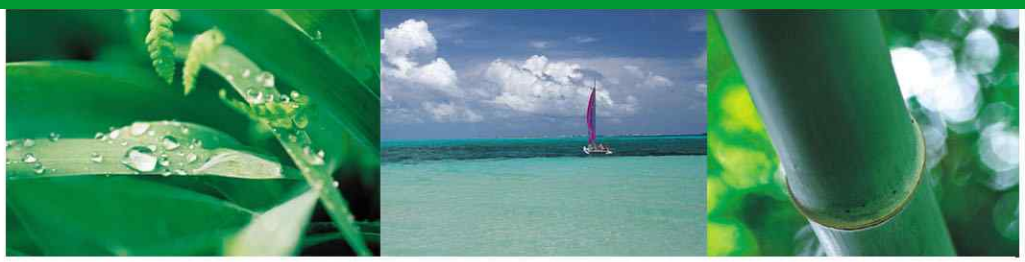
주간건설 Review

697호 2021.11.5.(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현대건설, 협력사와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
-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국민 눈건강 지킴이
- DL이앤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
- SK에코플랜트, 폐기물 자원 순환체계 구축 추진
- 한화건설,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 개관
- 호반건설, 서초구에 아동보호센터 준공 기부

▣ 건설경제 일반동향

- 2022년 국내건설수주 205조원 전망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개정안 행정예고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시행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10.30(토)~2021.11.5(금)> | 제697호 2021.11.5(금)

<업계 동향>

◈ 현대건설, 협력사와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

○ 11월2일 현대건설은 서울 계동 사옥에서 노조 및 협력사 임원들과 '2021년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음

○ 이날 협약식에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김준호 노조위원장, 협력사 대표 김형진 대아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협력사와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였음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을 진행한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가운데), 김준호 노조위원장(왼쪽), 대아이앤씨 김형진 대표이사(오른쪽)

○ 또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안전·품질·공정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강화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평가 강화 △H-안전지갑(무재해 근무일수에 인센티브 제공) 제도 △협력사 안전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협력사 의견을 청취하였음

◈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국민 눈건강 지킴이

○ 11월3일 대우건설은 최근 나이지리아 라고스주 현지 의료기관(LASUTH)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전케어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 대우건설과 한국비전케어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주에 의료·보건 서비스에 취약한 현지인을 대상으로 눈 검진과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캠프를 마련하고 연내에 안 검진을 통



나이지리아 라고스주 현지 의료기관(LASUTH)과 비전케어 사업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대우건설

해 누적 100건의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계획

○ 대우건설과 협력하고 있는 한국비전케어는 UN 협력 비정부기구(NGO)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실명예방위원회(IAPB)의 파트너 기관으로 베트남, 파키스탄,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에서 안과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개국에서 327회의 백내장 수술캠프를 실시했고, 4만4천여개의 안경을 지원하였음

○ 대우건설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전체 국민의 약 4분의 1 정도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백내장 치료는 실명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다른 국가로 비전케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DL이앤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

○ 11월3일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 사옥에서 DL그룹 배원복 부회장과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음



ISO 37001 인증 수여식에 참석한 DL그룹 배원복 부회장(사진 왼쪽)과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오른쪽)

○ ISO 37001은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췄는 지 종합 평가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부여하는 국제표준인증으로 지난 2016년 제정되었음

○ DL이앤씨는 이번 인증을 위해 올해 1월부터 TF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전 분야에 걸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감독할 운영 담당자를 임명하였으며, 특히 디벨로퍼로서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윤리경영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도록 재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음

◈ SK에코플랜트, 폐기물 자원 순환체계 구축 추진

○ 11월2일 SK에코플랜트와 환경시설관리(옛 EMC홀딩스)는 환경 혁신 스타트업인 리코(RECO)와 '스마트 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음

○ 지난 10월28일 온라인 비대면 서명방식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병권 SK에코플랜트

OTO센터장, 김원기 환경시설관리 대표이사, 김근호 리코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



비대면으로 진행된 '스마트 자원 순환 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실시한 'SK Eco Innovators Y21' 기술 공모전에 최종 선발된 환경 분야 스타트업과 사업 협업 연계 및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첫번째 프로젝트로,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는 리코와 폐기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원 연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 한화건설,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 개관

○ 10월29일 한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에서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허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을 개관하였음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 개관식에 참석한 허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왼쪽 세번째부터)

○ 한화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포레나'의 이름을 딴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으로 한화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의 일환이자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임

○ 한화건설은 2011년 3월 24일 서울 홍은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그린내에서 개관한 포레나 도서관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 11년 동안 매년 활동을 이어왔으며, 임직원들이 도서관 조성에 참여한 시간은 5000시간이 넘고, 기증한 도서도 약 6만여권에 달하고 있음

○ 이번 100호점을 통해 도서관 조성사업에 방점을 찍은 한화건설은 일회성 도서관 조성

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를 기부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

◈ 호반건설, 서초구에 아동보호센터 준공 기부

○ 10월28일 호반건설은 신기술을 적용해 건립한 아동보호시설인 '서초아동보호센터' 행사를 열고 서초구에 기부하였음



박철희 호반건설 사장, 이호영 텐일레븐 대표, 박성준 서초구청 밝은미래국장(왼쪽부터)

○ 이 센터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대응·관리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로 센터에는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 전담 요원, 심리치료사 등 9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아동학대 초기 개입, 아동보호 조치,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됨

○ 호반건설은 약 2개월 만에 연면적 108㎡ 규모의 건물 2개 동을 조성했으며 건립 비용 중 5억원을 후원하ㅇ씨음

○ 센터 건립에는 호반건설이 투자,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신기술이 대거 적용되었는데, 텐일레븐의 자동설계솔루션을 적용해 해당 부지에 적합한 건축물 설계안을 실시간으로 도출했고, 모듈러 건축기술을 통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음

◈ 2022년 국낸건설수주 205조원 전망

○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1월4일 오후 2시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2022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를 열어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가 205조원으로 최근 수년간의 성장세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주요내용>

❒ 2022년 건설시장 전망(ktb투자증권 라진성 연구위원)

-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상업용 부동시장 호황에 힘입어 전 공종에 걸쳐 수주증세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04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 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0.6% 증가한 205조원으로 최근 수년간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
- 내년도 공공건설 부문의 경우 SOC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업 기준금액 상향, 예타 면제사업 본격화, 민자SOC, 그린 뉴딜, LH발주 증가, 철도 공공물량 확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 예상되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 민간건설 부문의 경우 전년도 이월된 주택수주로 주거용은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전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민간건설 수주는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내년도 주택건설시장의 주요 변수로 예상되는 주택대출 규제 강화 및 금리 상승의 경우 아직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아니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수요를 약화시키고, 급매물 증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
-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주택정책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중요한 시기
- 한편,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17.3% 감소한 29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에는 올해 지연된 수주물량과 가스·석유화학·원전 등 다양한 공종에서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14.8% 증가한 334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COVID-19 백신 효과 및 유가상승으로 중동 주요 발주처들이 투자 재개를 발표했지만, 국내 건설사들은 과거와 달리 지역, 공종 등에 차별적인 접근을 통해 손실 축소에 집중하는 형태의 보수적인 입찰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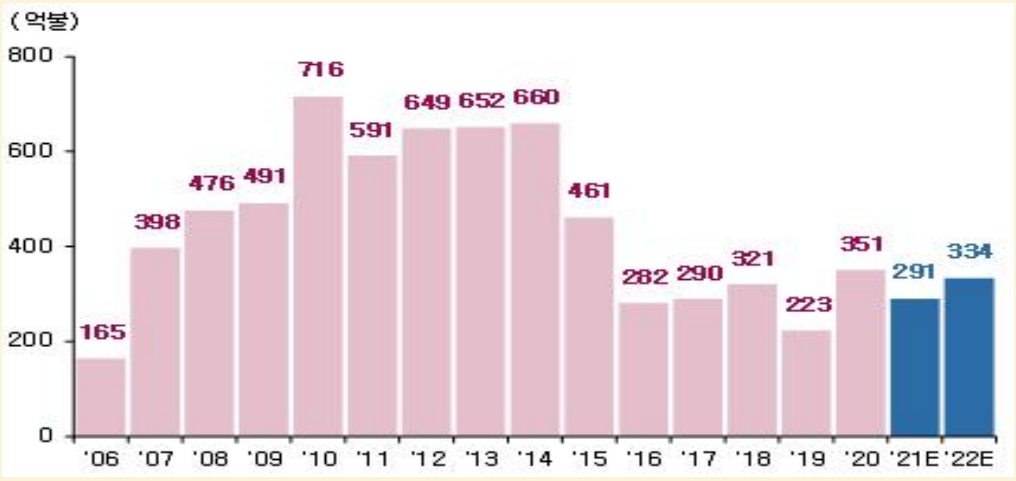
<2022년 건설시장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2022년(전망)		
				상반기	하반기 (전망)	소계 (전망)	상반기 (전망)	하반기 (전망)	소계 (전망)
합 계(조원)		166	194	103	101	204	101	104	205
증감률(%)		7.4	16.9	24.4	-9.3	5.1	-1.8	3.1	0.6
발주자별	공공	48	52	27	26	52	23	31	55
	증감률	13.5	8.4	27.3	-17.5	0.6	-12.9	22.5	4.4
	민간	118	142	76	75	152	78	73	150
	증감률	5.2	20.4	23.5	-6.2	6.7	2.1	-3.5	-0.7
공종별	토목	49	45	26	25	51	22	31	53
	증감률	6.7	-9.7	41.4	-6.1	13.3	-14.0	23.8	4.6
	건축	117	149	77	76	153	79	73	152
	증감률	7.8	28.2	19.7	-10.3	2.6	2.3	-3.6	-0.7
	주거용	65	93	39	40	79	47	39	85
	증감률	15.8	41.9	3.4	-26.9	-14.6	19.7	-3.6	7.8
	비주거용	51	57	38	36	74	32	34	67
	증감률	-1.0	10.7	42.5	20.3	30.9	-15.5	-3.6	-9.8

자료 : 한국건설경영협회, '2022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

연도별 해외건설수주 추이 및 2022년 전망>



자료 : 한국건설경영협회, '2022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

❒ **2022년 건설산업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CERIK 손태홍 연구위원)**

- 2022년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는 “정책 부양과 백신접종 확대로 반등한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여부, 에너지, 탄소중립, 미·중 충돌,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관련한 GVC(Global Value Chain)” 등 5가지, 그리고 국내 건설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는 “위드 코로나, 대통령 선거, 건설정책, 세계경제, 금리와 부동산, 디지털 전환” 등 6가지에 주목할 필요
- 특히,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가운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으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지속을 전망할 수 있고, 현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분야의 대선 후보별 공약에는 공급확대가 공통 핵심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기업의 기회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 등은 위협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건설정책’의 경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준수해야할 의무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한 등 보완이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을 위한 새로운 버전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이 건설기업 경영환경에 큰 부담으로 작동할 것
- SOC 등 국가예산의 증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표된 초광역 협력지원 대책은 단일 경제 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은 건설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2022년 건설산업 환경의 가장 큰 변수 요인은 코로나와 공존 시도의 성공 여부이며,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 측면에서는 위기요인보다는 기회요인에 집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 아울러 COVID-19는 투자 유치, 환경 위기 대응에 따른 사업 기회, 기업 브랜드 가치 제도 등으로 ESG 도입을 가속화하였고, 2030년까지 KOSPI 전상장 기업은 ESG 의무공시가 예정(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2025년)된 만큼, 경영과 투자 활동의 새로운 원칙으로 ESG 기반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3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 조정

-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금액(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상향조정
- 부과기준율이 구간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도 하한을 유지하되, 차등적으로 상향조정

❒ 매출액의 합리적 산정 근거 마련

-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 실적, 시장상황 등 다른 자료들을 활용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다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오록 상한을 설정함

❒ 과징금 경감 폭 확대

-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시장.경제여건 또는 부당이득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확대함

❒ 과징금 경감 폭 확대

- 현행 최대 10%인 과징금 경감 폭을,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시장·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에는 부과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폭을 30% 이내, 현저한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하였는 바, 이는 의도적 적자경영에 따라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현

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경우, 경감 사례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 **과징금 가중 법위반횟수 산정시, 타 기관 고발요청에 의한 고발 포함**

-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법위반횟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다른 기관의 고발요청에 의한 고발을 고발 횟수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의 경우 제외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함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시행

○ 경기도는 11월1일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1)경기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 (2)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3)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 지침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

<'경기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적용 범위**

-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
-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소속 기관도 포함

❒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및 관리절차**

- 기본(실시)설계-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

❒ **타당성 재조사**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검토를 거치도록 조치
- 사업추진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대상 규모로 증가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수요예측치 30%이상 감소, 예상되거나 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경우 등 시행
- (실시 제외) 매몰비용이 큰 경우/재해예방·복구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총사업비 조정기준**

- (단계별 검토기준) 기본원칙-공사비 조정기준-보상비 조정기준-부대비 조정기준 등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토기준과 방법 제시
-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등) 사업시행기관의 자율조정 시기 방법, 사후평가 등 명시
- (자문단 운영) 합리적 조정 관리를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 (총사업비 조정요구 절차·관리 방법) 요구서 제출시기, 수시조정 원칙, 사업완료 보고 등

❒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

❒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 포함**

- 이는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으로, 단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

❒ **부칙**

- '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진행중인 사업은 해당 단계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봄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10월29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이는 업역개편에 따른 정부의 제도 정비작업의 일환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 구분 등**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을 구분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토록 함

❒ **상대시장 진출 시, 주력분야 등록 요구 불가**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거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전문공사 발주 시 주력분야 요구 가능**

-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반조성 공사 등 발주 시, 공사 구분 유지 고려**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